



천주교안동교구
CATHOLIC DIOCESE OF ANDONG

공소사목

발 행 : 36678 안동시 마지막길 77
천주교 안동교구 사목국
전 화 : (054) 858 - 3114 ~ 5
F A X : (054) 856 - 6101
Home Page : <http://www.acatholic.or.kr>
E-mail : sa3119@nate.com



강 론



사랑, 지금 이 순간 행해야 하는 것.

찬미예수님~!!!

우리 사람들은 ‘사랑’이라는 말을 정말 많이 접하고 또 사용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사랑이라는 주제로 많은 노래들이 불려지고, 많은 책들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드라마나 영화에서도 사랑 이야기는 빠지지 않습니다. 또한 많은 가족들, 연인들, 친구들이 서로 사랑한다고 말들 합니다. 이것은 그만큼 우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사랑’이라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참으로 가치 있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철학자들은 이 ‘사랑’을 여러 가지로 설명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에로스, 필로스, 아가페인데,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에로스는 남녀 간의 사랑, 필로스는 친구 간의 우정, 아가페는 전적인 사랑입니다. 세 가지 모두 가치 있는 것이지만 우리가 결국 향해야 하는 것은 아가페, 전적인 사랑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떤 책에서 아가페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가페는 전적인 사랑입니다. ... 아가페를 경험했거나 느끼는 사람은, 이 세상에 사랑 말고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가페는 예수께서 인류를 위해 품었던 사랑이기도 하죠.’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서는 당신께서 품었던 그 ‘사랑’, 전적인 사랑인 아가페를 모든 계명 가운데 첫째가는 계명과 둘째가는 계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고, 이것 말고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의 개념에 대해 논하기 보다는, 사랑이 무엇이라고 정의하기 보다는 사랑을 몸소 실천에 옮기고, 그 사랑을 느끼고 체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느 가족이 아버지 생신을 축하하기 위해 계획을 짰습니다. 엄마는 아버지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을 준비하고, 큰 아들은 집안 청소, 딸은 집을 멋지게 장식하고, 작은 아들은 카드를 그리기로 했습니다. 드디어 생일날 아침, 아버지가 직장에 나가자 엄마와 아이들은 분주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아버지는 점심 때 돌아왔습니다. 부엌에 가서 아내에게 물 좀 달라고 했습니다. 음식준비에 여념이 없는 엄마가 말했습니다. “나 지금 바쁘니까 직접 따라 드실래요?” 거실에서 청소를 하고 있던 큰아들에게 부탁했습니다. “아버지 실내화 좀 갖다 주렴?” 그러나 큰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저 지금 바쁘는데 아버지가 갖다 신으세요.” 아버지는 할 수 없이 그렇게 했습니다.

아버지가 집안 여기저기를 장식하고 있는 딸에게 말했습니다. “담당의사에게 전화 좀 해서 아버지가 평소에 먹던 약을 처방해달라고 해주렴.” 딸이 대답했습니다. “저 지금 바쁘니까 아버지가 직접 하세요.” 아버지는 힘없이 “그러지.” 하고 말하고는 이층 침실로 올라갔습니다.

그때 작은 아들이 자기 방에서 무언가를 열심히 만들고 있었습니다. “뭐하니?”하고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작은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아무 것도 안 해요. 근데 아버지, 저 혼자 있고 싶으니까 문 좀 달고 나가 주실래요?”

아버지는 침대에 가서 누웠습니다. 드디어 저녁때가 되어 파티를 위한 모든 준비가 완료 되었습니다. 침실에 들어가 아버지를 깨웠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사랑한다는 것은 ‘나중에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순간에 실천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사랑은 나중에 더 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작은 것이라도 실천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슬기롭게 대답하는 율법학자에게 “너는 하느님의 나라에서 멀리 있지 않다.”고 이르셨습니다. 우리들은 슬기롭게 대답할 뿐만 아니라 슬기롭게 지금 이 순간 부족하더라도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여 하느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이루어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함창 본당 보좌 손대혁 루치오 신부



전례

입당 전 안내

교형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연중 제 31주일입니다. 하느님께서서는 당신 백성들과 맺으신 계약에 충실하십니다. 하느님의 아드님 영원한 대사제께서는 늘 살아계시며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니다. 우리는 마음과 힘을 다하여 하느님을 주님으로 모시며 은총 받는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전례를 통하여 성령의 은총을 청합시다.

입당성가 : 414번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25번 ‘사랑의 하느님’

본기도

†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느님, 은총을 베푸시어 저희가 하느님을 합당히 섬기고, 영원한 행복을 바라보며 거침없이 달려가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아멘.

제1독서 : 신명기 6장 2절-6절

안 내 :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분이신 주 하느님을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묵 상 : 모세는 하느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다시 상기시키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느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라는 명령을 마음에 새기라고 권고합니다.

화 답 송 : ◎ 저의 힘이신 주님, 당신을 사랑하나이다.

제2독서 : 히브리서 7장 23절-28절

안 내 : 영원한 대사제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늘 살아계시어 하느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을 구원하십니다.

묵 상 :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 자신을 제물로 바치시어 영원히 완전한 대사제가 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거룩하시고 순결하시고 죄인들과 떨어져 계시며 늘 살아계시어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니다.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도 그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가서 그와 함께 살리라.

◎ 알렐루야.

복 음 : 마르코 복음 12장 28절-34절

강 론 : ‘사랑, 이 순간 행해야 하는 것’(1-2쪽)

예물준비성가 : 216번 ‘십자가에 제헌되신’

영성체성가 : 501번 ‘받으소서 우리 마음’

영성체 후 묵상

율법의 글자 하나하나가 예수님의 말씀으로 생명을 얻습니다.
하느님의 계약이 율법에 갇혀 판단의 잣대가 되지 않도록
하느님의 마음, 하늘 나라 법의 근본 정신을 다시 상기시키십시오.

이스라엘아, 들어라.

하느님은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세상의 모든 것은 사라져 가겠지만

이 말씀은 영원히 우리 영혼에 울려 퍼질 것입니다.

공지사항

파견성가 : 46번 ‘사랑의 송가 ’

※ 공소사목 성금

이재복	50,000원
이순구	30,000원
이성호	50,000원
화북공소	50,000원
외남공소	50,000원

현재까지 들어온 성금은 **4,600,000원** 입니다.

성금을 보내주실 분은 계좌이체(농협 733-01-246127 천주교안동교구청)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알 림

■ 안동교구 50주년 기념

천주교 역사 유물 기증 운동

- 목적 : 천주교 안동교구 역사박물관 설립
- 내용 : 본당 및 개인이 소장한 서적, 성물 (십자가, 묵주 등), 사진, 오래된 유물
- 기간 : 2018년 수시로
- ※기증 시에는 교구장 명의의 기증증서 전달
- 문의 : 안동교구 50년사 편찬위 간사
박효진 유리안나 010-8560-1654
사무처 858-3111~3

■ 교구장 사목방문 일정 안내

- 11월 11일(연주 제32주일) 목성동 본당
※10:30 평신도 회년 폐막 미사
- 11월 18일(연중 제33주일) 용상동 본당

■ 사제회의, 사제평의회

- 일시 : 11월 5일(월) ~ 6일(화)
- 장소 : 농은수련원
- 영대 : 자색

■ 열린성경강좌 7

- 일시 : 11월 12일(월) 19:30 ~ 21:30
- 장소 : 교구청 1층 강당
- 참가비 : 1인 3천원
- 강사 : 함원식 신부(연계 본당 주임)

■ 청년연합회 생활성가 음악캠프

- 일시 : 11월 11일(주일) 09:30~21:00
파견미사(18:30)
- 장소 : 안동교구청 대강당
- 밴드 : 생활성가밴드 팩스(Pax)
- 참가비 : 1인 1만원
- 신청마감 : 10월 31 일(수) 까지 사목국으로

■ 가나혼인강좌

- 일시 : 11월 17일(토) 13:00 ~ 18:00
- 장소 : 안동교구청(3층 대회의실)
- 참가비 : 1인 1만원
- 준비물 : 미사준비, 필기구
- 신청자격: 결혼을 앞둔 남·여

■ 고3피정

- 일시 : 11월 17일(토) 10:00 ~ 18일(주일) 18:00
- 집결장소 및 시간 : 휴천동 성당 10:00
- 대상 : 고3(선착순 25명)
- 준비물 : 미사준비, 배낭, 운동화, 묵주, 필기도구, 겨울 옷
- 회비 : 4만원

■ 예비신학생 11월 모임

- 일시 : 11월 25일(주일) 14:00
- 장소 : 농은수련원 성직자 묘지
(예천군 지보면 지풍로 983-41)
- 준비물 : 미사준비, 묵주

■ 안동교구 성령대회

- 일시 : 11월 10일(토) 10:00 ~ 17:00
- 장소 : 함창성당
- 강사 : 이보경 데레사
- 회비 : 5천원
- 문의 : 성령봉사회(010-8447-0111)

■ 여성연합회 피정

- 일시 : 11월 15일(목) ~ 16일(금)
- 장소 : 포항 갈평피정의 집
- 참가비 : 5만원
- 준비물 : 미사준비, 성서, 묵주, 세면도구, 따뜻한 옷, 편한 신발
- 오시는 방법 : 지구별 혹은 본당별 개인차량
- 신청마감 : 10월 31일(수) 사목국으로

■ 은총 제1차 꾸르실료 체험 신청 안내

- 일시 : 11월 15일(목) 16:00~18일(주일) 17:00
[3박 4일]
- 장소 : 농은수련원
- 참가비 : 1인당 12만원
- 접수마감 : 11월 2일(금)까지
- 신청자격 : 영세 후 3년 경과하였거나
견진성사 받은 분, 70세 이상 어르신
- 신청 : 본당 신부님, 꾸르실료 간사

■ 꾸르실료 월레미사

- 일시 : 11월 19일(월) 20:00
- 장소 : 송현동 성당

■ 2019년 '명도회 장학금' 지원 대상자 공모

- 부문 : 장학금 지원(학부, 석박사 과정)
학술 연구비 지원(천주교 관련 연구)
- 신청기간 : 10월 17일(수) ~ 12월 17일(월)
- 접수방법 : 우편 또는 전자우편
(calf@cbck.or.kr)
- 문의 : 주교회의의 평신도기금운영위원회
02)460-7533

<교구설정 50주년을 준비하고 있는 교구민들이 안동교회사연구소의 「안동교회사연구소 자료집 7 - 간추린 【안동교구 年譜】: 1726-현재」(2014년)를 통해 지난 교구의 모습들을 살펴보고 새로운 50년을 열심히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자료집의 내용을 연재합니다.>

[1] 여명기에서 조선교구까지 : 1726-1910

◆1827년

- ▶ 8월 전라 . 경상 . 충청도 각지에서 천주교도 수백 명이 체포당하다.
- ▶ 9월 27일(음력) 충청도 홍주 사람으로 단양 가바기에 살았고, 상주 멩에목<현 충북 보은군 속리산면 구병리>에서 체포된 박경화(=甫祿, 바오로, 71세)가 수감된 지 5개월 만에 대구에서 옥사(獄死)하다.
- ▶ 10월 27일 순교자 김범우의 친척인 김군미(암브로시오, 68세 일명 은우)가 대구 감옥에서 옥사하다.
- 안동에 살다가 전라도 고산으로 이주한 신 요한과 신 이냐시오 형제가 체포되다.
- ▶ 10월 27일 1827년 안동진영에서 자수한 서울 출신으로 김범우의 먼 친척 되는 김세박(=恩禹, 암브로시오, 68세)이 대구 관덕정에서 사형집행을 기다리다가 옥사(獄死)하다.

◆1831년

- ▶ 9월 9일 그레고리오 16세에 의해 조선 포교지(布教地)를 북경교구(北京教區)로부터 분리 독립하여 조선대리감목구(朝鮮代理監牧區) 설정하고, 초대 교구장에 갑사(Capsa)의 명의주교 이면서 샴(Siam)교구의 보좌주교로 방콕에 있던 파리외방전교회(外邦傳教會) 소속 브뤼기에르(Barthelemy Bruguiere, 蘇)를 주교로 임명하다.
- ▶ 9월(8월?) 경상도 안동 출신으로 순흥 고을에서 영세(領洗) 입교(入教)한 1년 만에 김호연(바오로, 36세)이 집안의 박해와 중병으로 병사(病死)하다.
- 파리 외방전교회의 브뤼기엘 주교(재임기간 1831. 9~1835. 10)가 한국대목에 임명되어 입국하려 했지만 실패하다.

◆1832년

- ▶ 4월 초대 조선 교구 주교 브뤼기에르 페낭을 떠나 조선(朝鮮)으로 향하다.

◆1834년

- ▶ 1월 3일(음력 1833년 11월 24일) 중국인 유방제(劉方濟, 중국명 余恒德 파치피코) 신부가 변문에서 만난 유진길(劉進吉)과 조신철(趙信喆)의 안내로 조선에 입국하다.

◆1836년

- ▶ 4월 교황청이 조선교구 제2대 교구장으로 앙베르(재임기간 1836. 4~1839. 9)주교를 임명하다.

▶ 12월 2일 조선 교구의 임시관리자인 모방 신부로부터 성무정지처분(聖務停止處分)을 받고 중국 고향으로 돌아가는 유방제 신부와 함께 김대건(金大建, 안드레아) . 최양업(崔良業, 토마스) . 최방제(崔方濟, 프란치스코 사베리오) 3명을 가톨릭 신학교에 입학시키기 위해 마카오로 떠나는데 국경까지 정하상(丁夏祥, 바오로)과 조신철(趙信喆, 가롤로) . 이광렬(李光烈, 요한 1795~1839) 등이 안내하다.

◆ 1836년(丙申, 憲宗2, 淸 선종 道光16)

▶ 8월 17일 조선교구 제2대 교구장이 된 앵베르(Imbert, 范世亨, 41세)주교가 임지인 조선을 향해 떠나다.

◆ 1839년

▶ 4월 12일 형조판서가 장계(狀啓)를 올려 김대권(金大權) . 이태권(李太權) . 이일언(李日彦) . 신태보(申大甫 베드로, 70세) . 정태봉(鄭太奉) . 충남 서산과 봉화, 상주에서 살았던 김사건(金思健 안드레아, 46세) . 박사의(朴士儀 안드레아, 48세) . 이재행(李在行 안드레아) 등 8명의 사형집행을 품의하여 윤허를 받다.

▶ 4월 14일 김사건(金思健 안드레아, 46세) . 박사의(朴士儀 안드레아, 48세) . 이재행(李在行 안드레아) 대구 관덕정에서 참수 순교하다.

▶ 5월 정해박해(1827년) 때 붙잡혀 5년간 귀양살이 하다가 풀려난 신 요한 다시 체포되다.

▶ 5월 26일(음력 4월 14일) 충청도 홍주 사람으로 1827년 대구에서 옥사한 박경화(朴甫祿 바오로)의 아들 박사의(朴士義, 안드레아, 48세)가 상주 명애목에서 체포된 후 13년 만에 대구 관덕정에서 참수순교하다.

▶ 5월 29일(음력 4월 17일) 정태봉(鄭太奉, 흑 정만보, 태성 바오로, 44세) . 충남 청양 수단이 출신으로 김야고버(金若古排)의 형인 김대권(金大權, 베드로) . 충남 내포 출신 이태권(太權 일명 이성화, 베드로, 58세) . 충남 홍주 대벌 출신 이일언(李日彦, 읍, 73세)과 1827년 4월 22일 경북 상주 잣골(모동면 신흥리)에서 체포된 신태보(申大甫, 베드로, 70세 가량)가 전주에서 참수(斬首)로 순교하다.

▶ 7월 11일(양력) 충남 솔미 출신으로 봉화군 재산면 갈산리(우련밭)에서 살다가 충남으로 간 김 데레사(44세)(순교자 김종한 안드레아의 딸이며 손연옥의 처)가 정하상 일가 등 다른 신 자들과 함께 체포되다.

▶ 7월 13일 오가작통법(五家作統法)을 시행하고, 고발하지 않은 사람도 처벌하다.

▶ 7월 5월에 체포된 신 요한의 아우 신 이냐시오가 체포되어 형제가 함께 전주에서 순교하다.

▶ 9월 21일(음력 8월 14일) 배교자 김순성(=여상, 요한)의 밀고로 잡혔던 제2대 조선 대목구장 앵베르(范世亨, L. Imbert 라우렌시오) 주교와 주교의 권유로 자수(自首)한 모방(베드로) . 자크 샬스탕(정 야고버) 신부가 태형 70대를 맞은 다음 새남터에서 12명 군사의 칼에 목이 떨어져 순교하고, 군문효수(軍門梟首)되다. 조선 교구 보좌주교인 페레올 주교가 제3대 조선교구장을 승계하다.<그러나 본인은 앵베르 주교 순교 사실을 1843년 초에 알다.>

-다음에 계속-



모든 것이 하느님의 작품들

이춘희 테클라
(안동가톨릭문인회)

코발트색 물감을 쏟아놓고, 그 위에 하얀 솜구름으로 양떼들을 그려 놓으신 하느님의 작품을 감상하다보니 가슴이 막 벅차온다. 이처럼 아름다운 가을하늘을 보게 해 주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당신 평화를 선물하고 싶으신가보다. 어찌나 평화로운지 보고만 있어도 마냥 행복하였다. 가을을 무척이나 좋아하는 내게 보여주시는 양떼그림을 잠시나마 거실창 안으로 가져와 걸어 놓고 싶은 재미난 욕심을 내보니, 내가 잠시 소녀가 된 기분이 들었다.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다. 고추밭이 풍년이니 고추 따러 가자는 말에 가슴 설레는 소녀처럼 기다렸다는 듯이 달려 나갔다. 그리고 만난 친구에게도 내가 보았던 양떼가 사라지기 전에 하늘을 바라보라고 하니, 그 친구 역시 양떼들이 그려진 하느님의 작품에 감탄 하였다.

우리는 고추밭으로 향했다. 친구의 대모님이 농사지은 밭이다. 선하고 신앙심 깊은 언니의 삶이 아름다워 내가 좋아 하게 된 밭비나 언니네 밭이기도 하다. 직장을 다니면서 틈틈이 농사지은 고추밭엔 풋고추가 주렁주렁 달려있었다. 이 시기엔 붉은 고추가 많은 줄 알았는데, 풋고추가 가지가 부러질 듯 달려 있으니, 어찌된 일인가? 짬고추 이삭 좁는다는 생각으로 왔건만, 아직도 남아있는 많은 고추를 보고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 가뭄과 더위에 빨리 익어버린 붉은 고추를 따내고 난 뒤, 일찍 찾아온 가을에, 비까지 잦으니, 늦게 달린 고추라 색이 나지 않아 풋고추들만 가득하였다. 거기다가 밀거름도 많이 하였다고 한다. 농사짓는 이들의 안타까운 심정을 조금은 알 수 있었지만, 밭비나 언니의 수고와 사랑이 가득한 결실의 고추를 바라보면서 마음이 더 아렸다. 한차례 따서 짬고추를 만들어 서울로 판매 하기 위해 건조기에 들어가 있다는 고추보다 밭에 남아있는 것이 서른 배는 더 되어 보였다. 언제나 다 딸려나 시간 내어 따 주어야겠다. 고추나무 서너 포기들 잡고 따낸 풋고추가 금방 한 자루 가득 찼다.

머리말에 해님도 점점 멀어져간다. 흰 구름이 서쪽 하늘의 강렬한 햇살을 가려 노을을 만들어 가고 있는 그림도 오늘의 주님 작품이었다. 가끔 불어주며 땀을 식혀 주는 시원한 바람이 고마웠으며, 넓은 들판을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잠자리들의 반짝이는 날개 짓도 정겨운 풍경 이었다.

언니랑 나랑 지난 해 식목일 날 사다 심어놓은 왕 대추나무에 대추도 주렁주렁 달려있었다. 붉은 색을 띤 대추가 맛이 들어 몇 개를 따서 먹었더니 충분한 간식이 되었다.

시골마을, 감나무가 많은 동네에서 살았던 나는 초등학교 다닐 때 미술시간이면 가장 많이 그렸던 것이 발갈게 익은 감나무였다. 그 감나무들이 내 눈앞에 펼쳐져 있으니 내 마음은 이미 동심이였다. 주렁주렁 주저리가 버티기에 힘겨워 보였지만, 내가 좋아하는 탐스러운 감나무 또한 작품이었다. 무게를 못 견디고 채 익기도 전에 그만 부러진 감나무가 한그루 있었다. 그냥 버리기엔 아까우니 나보고 꽃감을 만들라고 하였다. 따서 담아보니 세 자루나 되었다. 가을 소풍 가는 날이면 꼭 가방에 들어 있었던 삭힌 감, 친정어머니가 만들어 주신 추억이 생각나 나는 그 감을 추억을 생각하며 뚝은 맛을 없애기 위해 삭혀서 나눠 먹는다고 집으로 가져왔다.

하루 종일 자연과 함께 지내다보니 온통 내 안에 맴도는 말씀이 있었다. “우리는 하느님의 작품입니다.”(에페소서 2.10)라는 말씀이 계속 가슴에서 맴돌고 있었다. 그렇다. 우리는 누구나 선행을 하면서 살아가도록 이미 창조된 작품인 것을, 밭비나 언니는 오늘도 충분한 선행으로 주님 마음에 드는 작품이었던 것을 새삼 깨닫게 되었고, 나 또한 주님께서 이미 만들어 주신 그 선행의 길을 살아가도록 만드신 작품이 맞을 것이다. 마음으로 느끼고 깨닫기만 하면 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매일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이 많은 나는, 선행으로 주님의 사랑 받는 자녀로 거듭나 살아가도록 해야겠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많은 작품을 가슴에 담고 설레는 마음으로 주님께 감사드린다.